

도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이창연* · 김한배**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n Exploratory Research on Cognitive Factors of Urban Representative Landscape

- Focused on Seoul -

Lee, Chang-Yeon* · Kim, Han-Bai**

*G.O. Landscape Architecture & Associates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urban representative landscapes play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city identity via a symbol of the city and a mediator to make the city all the more worthy of being peculiarized. The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perceptive factors in the representative landscapes around the metropolitan Seoul derived from the preliminary researche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ing, in an attempt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by type and reason, while further proposing progressive management plans. This study was mostly focused on the visibility factor, activity factor, aesthetic factor and cultural factor influencing on the cognition of urban representative landscapes. The important findings discovere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eople were being interested more on the cultural factors and the activity factors these days rather than visibility factors in the cognition of urban representative landscape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iority rank of urban representative landscapes reveal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total account of more diverse perceptive factors, showed so much alter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mostly upon the visual image.

Key Words: Cognitive Factors, Visibility Factor, Aesthetic Factor, Activity Factor, Cultural Factor

국문초록

도시이미지 안에서 대표경관들은 그 도시를 상징하며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도시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도시정체성의 중요한 기간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대표경관들이 어떠한 지각-인지의 조건들로 인해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 대표경관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대표경관들을 도출하고, 그들 각각의 인지요인들을 설문문을 통해 조사하여 유형별·요인별로 다각적 비교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향후 대표경관 계획 및 관리방안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기본방향은 특히 가시적 요인, 심미적 요인, 활동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면적 요인의 분석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의 대표경관의 인지 순위와는 큰

Corresponding author: Han-Bai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2210-5620, E-mail: hbkim@uos.ac.kr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는 시민들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인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직 기초적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후속 연구의 보완을 통해 향후 대표경관 계획과 관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인지요인, 가시적 요인, 심미적 요인, 활동적 요인, 문화적 요인

I. 서론

1. 연구 목적

도시경관 속에서 대표경관은 도시전체의 경관과 그 사회성을 요약하여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경관자원들이다. 대표경관은 시대적 가치와 도시 공간구조에 따라 변화와 퇴조, 신생을 계속하며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 대표경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시민의식 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체감하는 대표경관들을 추출하고 그 순위를 책정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조망점과 대표경관들의 시각적인 관계에 근거한 실무적 관리방안들을 고안해 내는 것에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래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대표경관의 성립조건에 기존의 시각적 인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구체적인 도시생활이나 역사문화적 인자 등 매우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중호 등, 2002; 변재상, 2005).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대표경관의 성립조건에 있어 기존의 시각적 측면 이외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연구가 현실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의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특정 경관자원을 대표경관으로 느끼는 공유된 인지요인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대표경관을 성립시키는 구조적 근거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다. 이와 함께 각 유형별 대표경관의 인지요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대표경관 계획과 관리의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려는 것이 연구의 2차적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원자료로 진행하는 2차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규모에 상응하지 못하는 설문조사 규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기초적 단계의 연구로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 의해 이러한 점들이 보완·발전된다면 본 연구에서 발견된 성과는 기존 대표경관의 대표성을 유지관리하거나 새로운 대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로 대표경관의 개념을 정리하고 서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서울의 대표경관들을 종합, 정리한다. 2단계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표경관을 형성하는 가설적인 인지요인들을 설정하고 유형화한다. 3단계는 시민들의 대표경관 인지에 대한 설문결과를 통계 분석함으로써 대표경관 유형들과 인지요인 유형들 간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표경관 효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그림 1 참조).

II. 이론적 고찰

1. 도시경관과 대표경관

경관은 늘 변화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변치 않는 특성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인식하곤 한다(Lynch, 1960). 그와 관련해 대표경관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경관 요소들 중에서 비교적 영속성을 유지하는 공공적 요소로서 시민들이나 방문자에게 특히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경관이다. 대표경관은 그 도시를 상징하며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도시다움을 느끼게 하여 도시정체성 확립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도시이미지의 개념은 시각적 접근과 활동적 접근, 의미적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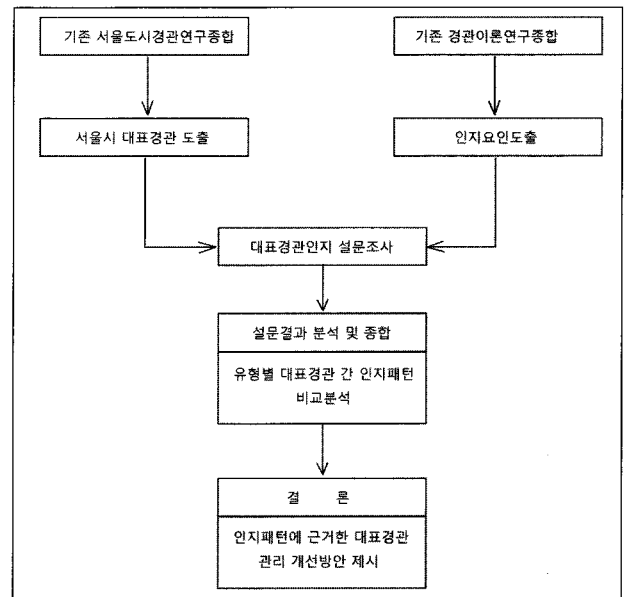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과정

근을 포괄하는 총체적 방식에 의해 접근할 수 있다. 도시이미지란 인간과 환경간의 다면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도시에 있어서 일부 부분적 요소들은 각기 특이한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이들의 이미지가 모여서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박석중, 1988), 이러한 도시의 부분적 장면들을 도시의 대표경관(代表景觀)이라 할 수 있다.

대표경관은 특정 도시의 공공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경관 요소들 중 시민들이나 방문자에게 특히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명물(名物)'과 '명소(名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명물은 가시성이 높은 시각대상인 반면 명소는 주로 공공적 활동성이 높은 체험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한배, 1998). 본 연구의 본론 부분에 등장하는 서울시의 대표경관들은 대체로 이들 양자의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도시 전체의 경관에서 눈에 잘 띄는 수직적 경관요소들로 랜드마크형 경관요소라 할 수 있고, 후자는 주로 도시의 각 부분에서 시민들의 공공적 활동성이 높은 장소형, 가로형 경관, 즉 시가지의 결절점형 경관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계획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베시(神戸市) 특유의 경관자원분류방식 중 거시적 '조망형 경관'이 전자에, 미시적 '환경형 경관'이 후자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한국조경학회, 2004: 12). 도시경관은 실체로서의 객관적, 물리적 환경과 관찰자의 주관적 체험이 결합된 하나의 복합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도시 활동이나 장소의 역사·문화적 의미 등 시각적이지 않은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임승빈, 1991).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역사문화적 의미가 내포된 조망형 경관이나 환경형 경관은 더욱 대표경관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도시 대표경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실제 시민의식조사에 기초한 특정도시의 대표경관 자원에 관한 연구(윤인규, 1993; 손은영과 김종하, 2002; 박영춘, 2002; 서울특별시,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와 대표경관의 인지요인 규명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김종호 등, 2002; 임승빈 등, 2004; 변재상, 2005)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특정도시의 대표경관 자원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윤인규(1993)는 1990년대 초반 대표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서울의 대표적 인 경관자원들을 추출했다.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서울시의 연구프로젝트의 결과로서 서울시민들의 인지에 기반한 대표경관자원들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서울특별시,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전자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던 '서울기록화사업'을 위한 예비적 조사의 성격이

있고, 후자는 서울의 도시마케팅차원의 연구조사로서 물리적 이미지의 차원만이 아닌 형용사분석을 통한 도시성격에 대한 이미지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쨌든 10년의 간격을 가지는 조사결과는 대표경관의 리스트와 순위를 적지 않게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한강과 강남 지역의 부상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표경관 인지요인에 대한 연구로는 9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던 인지지도에 의한 연구방법(이규목, 1993)이 계속되고 있으나, 대표경관 요소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들 간의 공간조직적 관계에까지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최준과 김영환, 2008). 2000년대 들어 시도되고 있는 대표경관과 도시이미지에 관한 특징적 방법들은 보다 상세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들을 규명하려 하고 있다. 특히 랜드마크 등 대표경관자원들의 인지요인에 관한 연구(김종호 등, 2002; 변재상, 2005)와 형용사목록을 사용한 비물리적이고 총체적인 도시이미지의 규명(주신하와 임승빈, 2003; 임승빈 등, 2004)이라는 두 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중 김종호 등(2002)은 랜드마크 자체의 인지요인을 '역사문화, 규모, 시각적 형태, 입지성, 유일성' 등을 들고 이 외에 관찰자와의 거리의 요인이 간접적으로 인지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변재상(2005)은 랜드마크의 인지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즉, 물리적 요인은 근거리인 지구적 범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비물리적 요인은 전도시적 차원에서 보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랜드마크의 심미적 인지요인이나 용도나 집속빈도 등 공공적, 활동적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III. 분석 방법

1. 대표경관 인지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종합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포함한 국내외 관련연구들에 언급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포괄적인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인지요인들을 범주화하였다. 여기서는 기존 국내외의 인지요인 연구에서 비중이 약하게 다루어졌던 심미적 측면의 요인들과 활동적 측면의 요인들을 별도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이 중 심미적 측면은 내용적으로는 가시적 측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비교하여 보다 질적인 측면의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활동적 측면의 요인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열려 있는 공공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대표경관과 관련된 기존 이론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도시이미지 내에서의 도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을 가시적 측면, 심미적 측면, 활동적 측면, 의미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이들 인지요인들의 범주구분은 실상 장소

표 1. 기존 연구들의 도시 대표경관 인지요인 종합

기존연구		도시 대표경관 인지요인								
연구자(년도)	요인	가시적 측면		심미적 측면		활동적 측면		의미적 측면		
		가시성	규모성	차별성	심미성	접근성	활동성	대중성	역사성	문화성
Lynch (1960)	특이성(singularity)			●						
	단순성(simplicity)			●						
	연속성(continuity)								●	
	우월성(dominance)	●	●	●						
	명료성(clarity of joint)					●				
	방향성(directional differentiation)			●						
	가시 범위(visual scope)	●	●							
	활동인식(motion awareness)						●			
Appleyard (1969)	시계열(time series)								●	
	의미(name & meaning)									●
	유형(form)			●						
Harrison and Howard (1972)	가시성(visibility)	●	●							
	중요성(significance)								●	●
Kaplan (1976)	위치성					●				
	외관	●	●						●	
이건영과 김용기 (1984)	인간과의 연관성							●		
	의미성								●	●
	시각적 특성	●	●	●	●				●	●
류기익과 장명수 (1987)	연역적 특성								●	●
	기능적 특성					●	●	●		
	규모성		●							
	조형성			●						
	가시거리	●								
	장소						●	●		
	광고성						●	●		
Nasar (1998)	역사								●	
	혼잡도							●		
	상징성									●
	물리적 차원	●	●	●		●	●	●		
Xuan (2000)	추상적 차원				●					
	상징적 차원									●
	개인적 차원				●					●
	사용의 중요성(use significance)					●				
	특수성(distinctiveness)			●						
김중호 외 (2002)	가시성(visibility)	●	●							
	특이성(specific characters)	●	●	●						
	조화성(harmonization)				●					
	연속성(continuation)								●	
	보존성(protection)								●	
변재상 외 (2006)	유일성(uniqueness)								●	●
	장소성(location)					●				
	규모성(scale)		●							
	역시문화요인								●	●
	규모 요인		●							
변재상 외 (2006)	시각적 형태 요인			●						
	입지성 요인					●				
	유일성 요인								●	●
	규모성		●							
	정결성				●					
	선호성				●					
요인별 빈도계	문화성								●	●
	발전성								●	
	시간성								●	
	역동성						●			
	활동성						●			
요인별 빈도계		9	12	11	7	7	6	6	13	11

자료: 변재상, 2005. 필자 재작성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장소적 정체성의 구성요소들인 '물리적 외관', '활동', '의미'와도 부합되고 있다(이규복, 1980). 따라서 이러한 범주들은 기존의 시각적 차원에 치중되던 경관연구를 발전시켜 대표경관과 도시민들 간의 사회문화적 일체감을 증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범주들을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려고 한다.

2. 분석방법론 도출

1) 서울시 대표경관 종합

대상지를 서울시로 하여 대표경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경관들을 조사하고 종합하였다. 기존 연구 중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윤인규(1993)의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10년 이상 경과된 연구로 그 사이 많은 도시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참고자료로만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자료로는 주로 최근에 이루어진 서울시 사진 기록화 사업 기획보고서(서울특별시, 2006)¹⁾에 포함된 2004년도 시행 서울시 도시이미지 설문조사의 결과(표 2 참조)와, '서울시 이미지에 관한 다차원 분석 연구'(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5)의 연구결과(표 3 참조)를 종합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사용할 대표경관자원들은 기존 연구결과 중 2004년과 2005년의 설문조사결과의 평균백분율을 기준으로 20개 대표경관의 순위를 설정하였다. 대표경관의 추출과정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나타난 비물리적인 도시이미지 요소를 제외하고 20위까지의 대표경관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1위는 남산, 2위는 한강, 3위는 63빌딩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체 리스트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2) 분석의 틀 구축

이렇게 추출된 서울의 대표경관들을 다시 자연경관형, 역사경관형, 건축물경관형, 시가지경관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분류의 기준은 법정 '경관계획수립지침'²⁾ 내 경관자원분류체계 중 도시경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연경관,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경관, 역사문화경관을 토대로 하였다. 그 중에서 시가지경관 부분은 경관자원들의 공간적 특성상 '건축물경관형(랜드마크형)'과 '시가지경관형(활동장소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직접 분석의 단계에서는 이들 각각의 대범주들을 시각적, 용도적 성격으로 다시 세부분류를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연경관형은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역사경관형은 장소형과 랜드마크형으로, 건축물경관형은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시가지경관형은 광장형과 가로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연경관형에는 남산과 한강, 북한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역사경관형으로는 경복궁, 남대문, 광화문, 동대문, 덕수궁 등이 상위 요소로 나타난다. 건축물경관형에는 63빌딩, 청와대, 삼암월

표 2.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순위	대표경관	빈도	백분율(%)
1	남산	56	16.0
2	한강	46	13.1
3	63빌딩	39	11.1
4	경복궁	32	9.1
5	남대문	25	7.1
6	관악산	15	4.3
7	덕수궁	13	3.7
-	잠실운동장	13	3.7
-	올림픽경기장	13	3.7
10	세종문화회관	11	3.1
11	명동성당	10	2.8
-	북악산	10	2.8
13	광화문	9	2.6
-	도봉산	9	2.6
15	독립문	8	2.3
16	동대문	6	1.7
-	국립묘지	6	1.7
18	서울역사	6	1.7
19	창덕궁	5	1.4
-	예술의전당	5	1.4
-	강남터미널	5	1.4
22	행주산성	4	1.1
23	수락산	2	0.6
-	인왕산	2	0.6
25	아차산	1	0.3

자료: 윤인규, 1993

드컵경기장, 국회의사당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가지경관형은 시청앞광장, 명동거리, 서울역일대, 인사동거리, 여의도, 청계천, 코엑스, 압구정거리 일대 등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단계로 본 연구는 이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파악된 서울시의 유형별 대표경관들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이 가지는 인지행태를 직접적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즉, 이들 도출된 서울시의 유형별 대표경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서 도출되었던 가설적 인지요인들인 가시성, 규모성, 차별성, 심미성, 접근성, 활동성, 대중성, 역사성, 문화성의 9가지 인지요인들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분석의 틀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3) 설문 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는 서울시에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5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각 구역별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효한 설문 총표본수는 200명이었

표 3. 서울시사진 기록화 사업 기획보고서

순위	대표경관	빈도	백분율(%)
1	한강	492	8.80
2	남산(타워, 길 포함)	483	8.60
3	63빌딩	455	8.10
4	명동거리	339	6.00
5	동대문	285	5.10
6	인사동(길, 상가, 골목)	271	4.80
7	종로(골목, 피맛골 등)	266	4.70
8	경복궁	245	4.40
9	광화문	232	4.10
10	상암월드컵경기장	219	3.90
11	여의도(공원 포함)	216	3.90
12	시청	208	3.70
13	강남역 주변 일대	176	3.10
14	서울역 일대	176	3.10
15	대학로일대	162	2.90
16	코엑스	140	2.50
17	지하철	136	2.40
18	청와대	133	2.40
19	압구정 거리 일대	132	2.40
20	청계천(공사, 벚꽃시장)	132	2.40
21	덕수궁	96	1.70
22	국회의사당	88	1.60
23	버스(정류장, 차로 등)	81	1.40
24	북한산	81	1.40
25	올림픽공원	71	1.30
26	시청앞 광장	63	1.10
27	남대문 시장	62	1.10
28	이태원(길, 게이바)	62	1.10
29	창경궁	52	0.90
30	동대문시장	50	0.90

자료: 서울특별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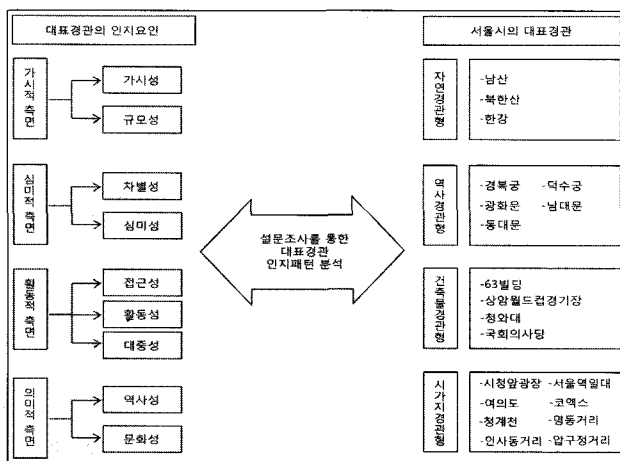


그림 2. 분석의 틀: 도시 대표경관 인지요인과 대표 경관

표 4. 서울시 이미지에 관한 다차원 분석연구

순위	대표경관	빈도	백분율(%)
1	남산: 남산타워/서울타워/서울남산공원/남산 케이블카	213	17.80
2	63빌딩: 여의도63빌딩/63빌딩 수족관	162	13.60
3	한강: 한강다리/한강철교/한강유람선/한강고수부지/한강시민공원/한강분수대	160	13.40
4	남대문: 남대문시장/승례문	107	9.00
5	광화문: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광화문거리/세종로/세종로의 충무공동상	85	7.10
6	경복궁	79	6.60
7	시청: 시청앞광장/시청공원/시청역광장/서울광장	55	4.60
8	청와대	41	3.40
9	동대문: 동대문시장/동대문쇼펄/홍인지문	39	3.30
10	지하철	30	2.50
11	서울역: 서울역 시계탑	23	1.90
12	교통체증: 복잡한 도로/짜막힌 도로	20	1.70
13	청계천: 청계천공사/청계천공구상가	19	1.60
14	덕수궁: 덕수궁 돌담길	18	1.50
-	상암월드컵경기장: 2005월드컵/하늘공원/경기장 앞 분수대	18	1.50
16	명동: 명동 밀리오레	17	1.40
-	인사동: 인사동거리	17	1.40
18	국회의사당	15	1.30
-	롯데월드	15	1.30
-	코엑스: 무역센터/무역회관	15	1.30
21	분주한 사람들/수많은 인파	13	1.10
22	이명박/서울시장	12	1.00
-	88올림픽: 88서울올림픽/호돌이	12	1.00
24	여의도: 여의도광장/여의나루/여의도 선유도공원	10	0.80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다.³⁾ 그리고 설문자의 연령, 성별, 직업,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 거주기간 등의 인구통계자료를 조사하였다(표 6 참조). 구체적인 설문조사의 내용은 상기 20개의 대표경관들을 대상으로 각 인지요인별 평가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표경관의 가설적 인지요인인 가시성, 규모성, 차별성, 심미성, 접근성, 활동성, 대중성, 역사성, 문화성 등 9가지 요인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가시성 요인의 경우, 대표경관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있습니까?', 규모성은 '주변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크기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표 5.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서울시 대표경관

순위	대표경관	평균백분율(%)	비고
1	남산	13.20	- 서울시 도시이미지 경관 설문조사 결과(2004) - 서울시 이미지에 관한 다차원 분석연구(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5)의 기존연구자료를 종합한 결과
2	한강	11.10	
3	63빌딩	10.85	
4	광화문	5.60	
5	경복궁	5.50	
6	남대문 ⁴⁾	5.05	
7	동대문 ⁵⁾	4.20	
8	시청(시청앞광장)	4.15	
9	명동거리	3.70	
10	덕수궁	3.20	
11	인사동거리	3.10	
12	청와대	2.90	
13	삼암월드컵경기장	2.70	
14	서울역 일대	2.50	
15	여의도 ⁶⁾	2.35	
16	청계천	2.00	
17	코엑스 ⁷⁾	1.90	
18	국회의사당	1.45	
19	압구정거리 일대	1.20	
20	북한산	0.70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단계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차별성 요인의 경우, 경관의 모습이 특이하여 주변과 얼마나 차별되어 보이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모습이 특이합니까?' 라는 평가항목을 사용하였고, 심미성은 '경관이 아름답습니까?' 라는 너무 추상적인 질문대신에 '경관이 매력적입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보다 복합적인 심미성을 평가하였다.

접근성 요인의 경우, 대중이 경관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를 평가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보행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라는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활동성은 '즐거워 가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그 경관에 대한 개인별 활동선호도 및 방문빈도를 측정하였다. 대중성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합니까?'라는 고른 이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의미성 요인은 역사성과 문화성으로 구분하여 '역사성이 느껴집니까?', '문화적인 성격이 독특합니까?'의 항목으로 동일한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N. 분석 결과 및 종합

1. 대표경관의 유형별, 요인별 인지요인 분석

먼저, 각각의 대표경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경관

표 6. 설문표본의 속성⁸⁾

이용자 특성		표본수(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98	49.00	-
	여성	102	51.00	-
연령	10대	10	5.00	-
	20대	115	57.50	-
	30대	69	34.50	-
	40대	6	3.00	-
거주기간	1년 미만	15	7.50	-
	1~3년	10	5.00	-
	3~5년	10	5.00	-
	6~10년	41	20.50	-
	11~15년	5	2.50	-
	15년 이상	119	59.50	-
직업	공무원	5	2.50	-
	주부	11	5.50	-
	학생	58	29.00	-
	전문직/회사원	115	57.50	-
	기타	11	5.50	-
자주이용하는 교통편	버스	61	30.50	-
	지하철	87	43.50	-
	택시	5	2.50	-
	자가용	31	15.50	-
	기타	16	8.00	-

의 인지 요인의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대표경관을 자연경관형, 역사경관형, 건축물경관형, 시가지경관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파악된 유형별 대표경관들 각각의 인지요인들을 평균측정값의 순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표 7 참조).

대표경관별 인지요인의 순위와는 반대로 인지요인별로 두드러지는 대표경관의 순위를 분석해 보았다(표 8 참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울 전체의 도시경관 이미지의 특징을 요인별로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관리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자연경관형

자연경관형은 가시성 요인, 규모성 요인, 대중성 요인이 상위 인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역사성, 문화성 등 의미성 요인, 활동성 요인이 하위 인지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도심에 위치하는 남산과 서울을 횡단하는 한강은 각각 서울의 구조적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년에 도시민의 이동성 증가와 강남 쪽의 도시 확산 추세와 더불어 한강의 인지도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접근성과 의미성 요인, 그리고 활동성 요인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남산과 한강 그리고 북한산 등의 자연경관

표 7. 유형별 대표경관에 따른 인지요인 순위

유형	순위		대표 경관별 인지요인 순위								유형별 요인누적값 평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자연 경관형	수직형	남산	가시성 (3.99)	규모성, 대중성 (3.79~3.76)	심미성 (3.58)	접근성, 차별성 역사성, 문화성	활동성	-	-	-	30.43
		북한산	대중성 (3.97)	규모성, 심미성 (3.81~3.76)	가시성 (3.57)	역사성, 차별성	접근성	문화성	활동성	-	
	수평형	한강	가시성, 규모성 대중성 (4.34~4.28)	심미성 (3.69)	접근성 (3.52)	활동성	차별성, 문화성	역사성	-	-	
역사 경관형	장소형	경복궁	역사성 (4.63)	문화성 (4.38)	심미성, 차별성 접근성 (4.12~3.94)	대중성, 규모성	가시성	활동성	-	-	31.86
		덕수궁	역사성 (4.13)	문화성, 심미성 (3.74~3.66)	차별성 (3.55)	접근성, 대중성	규모성, 가시성	활동성	-	-	
	랜드 마크형	광화문	역사성 (4.08)	문화성, 접근성 (3.80~3.79)	심미성, 가시성 (3.69~3.67)	대중성, 차별성 규모성	활동성	-	-	-	
		남대문	역사성 (4.34)	차별성, 문화성 가시성, 심미성 접근성 (3.87~3.74)	규모성 (3.38)	대중성	활동성	-	-	-	
		동대문	역사성 (3.92)	문화성 (3.74)	접근성, 가시성 심미성, 차별성 규모성 (3.49~3.30)	대중성	활동성	-	-	-	
건축물 경관형	민간형	63빌딩	가시성, 규모성 (4.06~4.02)	차별성, 접근성 (3.44~3.33)	심미성, 대중성 (2.94~2.9)	문화성	역사성	활동성	-	-	26.34
	공공형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규모성 (4.07)	대중성 (3.90)	차별성, 접근성 심미성, 가시성 (3.76~3.49)	문화성	활동성	역사성	-	-	
		청와대	차별성 (3.20)	규모성 (3.05)	역사성, 심미성 (2.99~2.89)	문화성	가시성	접근성	대중성	활동성	
		국회의사당	가시성 (3.74)	차별성, 규모성 (3.40~3.36)	역사성, 접근성 심미성, 문화성 (2.76~2.52)	대중성	활동성	-	-	-	
시가지 경관형	광장형	시청앞광장	대중성 (4.31)	접근성, 가시성 (3.98~3.89)	문화성, 심미성 (3.61~3.50)	규모성, 차별성	활동성, 역사성	-	-	-	30.85
		서울역일대	접근성 (4.32)	대중성 (4.14)	가시성 (3.81)	규모성, 차별성 역사성, 심미성	문화성	활동성	-	-	
		여의도	대중성, 접근성 (3.99~3.90)	가시성 (3.59)	규모성 (3.25)	심미성, 문화성 활동성, 차별성	역사성	-	-	-	
		코엑스	대중성, 접근성 (4.29~4.20)	활동성, 규모성 가시성, 심미성 문화성, 차별성 (3.62~3.50)	역사성 (1.94)	-	-	-	-	-	
	가로형	청계천	대중성, 접근성 (4.34~4.25)	심미성, 차별성 문화성, 가시성 활동성, 차별성 (3.83~3.81)	역사성 (3.04)	-	-	-	-	-	
		명동거리	대중성 (4.54)	접근성 (4.24)	활동성 (3.66)	문화성, 가시성	심미성	규모성, 차별성	역사성	-	
		인사동거리	대중성 (4.41)	문화성 (4.09)	심미성, 접근성 차별성 (3.95~3.80)	활동성, 역사성	가시성, 규모성	-	-	-	
		압구정거리	대중성 (4.24)	접근성 (3.71)	문화성 (3.46)	가시성	심미성, 규모성 차별성	활동성, 역사성	-	-	

표 8. 인지요인별 대표경관의 순위

인지요인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15위	16~20위	
가시적 측면	가시성	한강 (4.34)	63빌딩 (4.06)	남산 (3.99)	시청앞 광장 (3.89)	남대문 (3.81)	서울역 일대 (3.81)	국회의사당 (3.74)	청계천 (3.71)	광화문 (3.67)	여의도 (3.59)	북한산(3.57), 코엑스(3.54), 상암월드컵경기장(3.49), 동대문(3.46), 명동거리(3.28)	압구정거리일대(3.18), 경복궁(3.05), 인사동거리(3.00), 덕수궁(2.95), 청와대(2.38)
	규모성	한강 (4.28)	상암 월드컵 경기장 (4.07)	63빌딩 (4.02)	북한산 (3.81)	남산 (3.76)	청계천 (3.72)	경복궁 (3.69)	코엑스 (3.59)	남대문 (3.38)	광화문 (3.36)	국회의사당(3.36), 서울역일대(3.35), 동대문(3.30), 시청앞광장(3.27), 여의도(3.25)	덕수궁(3.07), 청와대(3.05), 인사동거리(2.89), 압구정거리일대(2.83), 명동거리(2.77)
심미적 측면	차별성	경복궁 (4.05)	남대문 (3.87)	청계천 (3.81)	인사동 거리 (3.80)	상암 월드컵 경기장 (3.76)	덕수궁 (3.55)	코엑스 (3.50)	63빌딩 (3.44)	광화문 (3.41)	북한산 (3.41)	국회의사당(3.4), 동대문(3.34), 서울역일대(3.29), 청와대(3.20), 시청앞광장(3.17)	한강(3.00), 남산(2.94), 압구정거리일대(2.81), 명동거리(2.75), 여의도(2.64)
	심미성	경복궁 (4.12)	인사동 거리 (3.95)	청계천 (3.83)	남대문 (3.78)	북한산 (3.76)	한강 (3.69)	광화문 (3.69)	덕수궁 (3.66)	남산 (3.58)	상암 월드컵 경기장 (3.55)	시청앞광장(3.50), 코엑스(3.47), 동대문(3.36), 서울역일대(3.08), 명동거리(3.02)	63빌딩(2.94), 압구정거리일대(2.94), 여의도(2.90), 청와대(2.89), 국회의사당(2.59)
활동적 측면	접근성	서울역 일대 (4.32)	청계천 (4.25)	명동 거리 (4.24)	코엑스 (4.20)	시청앞 광장 (3.98)	경복궁 (3.94)	인사동 거리 (3.91)	여의도 (3.90)	광화문 (3.79)	남대문 (3.74)	압구정거리일대(3.71), 상암월드컵경기장(3.70), 한강(3.52), 동대문(3.49), 덕수궁(3.39)	63빌딩(3.33), 북한산(3.23), 남산(3.04), 국회의사당(2.62), 청와대(1.92)
	활동성	명동 거리 (3.66)	인사동 거리 (3.64)	코엑스 (3.62)	청계천 (3.58)	한강 (3.23)	시청앞 광장 (2.87)	경복궁 (2.84)	광화문 (2.82)	여의도 (2.76)	동대문 (2.63)	압구정거리일대(2.63), 상암월드컵경기장(2.59), 남대문(2.45), 서울역일대(2.45), 덕수궁(2.41)	북한산(2.29), 남산(2.13), 63빌딩(1.79), 국회의사당(1.74), 청와대(1.52)
	대중성	명동 거리 (4.52)	인사동 거리 (4.41)	청계천 (4.34)	시청앞 광장 (4.31)	코엑스 (4.29)	한강 (4.28)	압구정 거리 일대 (4.24)	서울역 일대 (4.14)	여의도 (3.99)	북한산 (3.97)	상암월드컵경기장(3.90), 남산(3.79), 경복궁(3.64), 광화문(3.46), 덕수궁(3.34)	동대문(3.14), 남대문(3.04), 63빌딩(2.90), 국회의사당(2.29), 청와대(1.82)
의미적 측면	역사성	경복궁 (4.63)	남대문 (4.34)	덕수궁 (4.13)	광화문 (4.08)	동대문 (3.92)	인사동 거리 (3.64)	북한산 (3.44)	서울역 일대 (3.20)	청계천 (3.04)	청와대 (2.99)	시청앞광장(2.82), 남산(2.81), 국회의사당(2.76), 한강(2.68), 상암월드컵경기장(2.43)	명동거리(2.39), 여의도(2.38), 63빌딩(2.14), 코엑스(1.94), 압구정거리일대(1.90)
	문화성	경복궁 (4.38)	인사동 거리 (4.09)	남대문 (3.86)	광화문 (3.80)	청계천 (3.75)	동대문 (3.74)	덕수궁 (3.74)	시청앞 광장 (3.61)	압구정 거리 일대 (3.46)	코엑스 (3.36)	명동거리(3.34), 상암월드컵경기장(3.24), 북한산(3.00), 한강(2.97), 서울역일대(2.97)	여의도(2.83), 남산(2.78), 청와대(2.68), 63빌딩(2.52), 국회의사당(2.52)

들이 시민의 보행접근이 어렵고, 이들의 계획 및 관리에 있어 그곳을 다시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역사문화와 이용활동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2) 역사경관형

요인별 점수의 누적에서 역사경관형은 기존의 자연경관형을 제치고 상위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경관형은 공통적으로 의미성 요인이 상위 인지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차별성, 심미성 등 형태미의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비물리적 측면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위 인지요인으로는 장소형의 경우 활동성 요인과 가시성 요인이, 랜드마크형의 경우는 활동성 요인과 대중성 요인이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경복궁과 같은 장소형 역사경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물의 높이와 밖으로 둘러쳐진 담장 등의 요소로 인해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지만 가시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남대문과 같은 랜드마크형 역사경관은 도로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다양한 시민계층에 대한 개방성 즉, 대중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역사경관형은 공통적으로 활동성 요인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문화재의 특성상 비일상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경관과 연계하는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건축물경관형

건축물경관형은 대표경관의 모든 유형 중 최하위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주로 현대 이후 조성된 건축물경관형으로 가시성과 규모성이 상위 인지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활동성과 역사성, 심미성 요인이 하위 인지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63빌딩, 상암월드컵경기장 등과 같은 서울의 대표 건축물들은 건축물의 높이와 크기로 인해 가시성과 규모성 요인이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활동성과 역사성 요인이 부족하고, 건축 형태면에서 저조하게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의 건축물들이 주변지역의 활동과 관련하는 문화성, 그 장소와 결부되는 지역성을 배제한 채 주로 규모 등, 눈에 두드러지는 가시적인 것에 치중하는 건축양상을 보여 온 까닭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시민주체의 눈높이에서 한국건축 전반에 나타나는 공공성과 심미성에 대해 문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4) 시가지경관형

가로, 광장, 청계천 등 시가지경관형은 대중성과 접근성 요인이 상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성과 역사성 요인이 하위 인지요인으로 나타났다. 광장이나 길과 같은 시가지경관형은 광장, 가로 등의 도시 내 위치, 경관의 물리적 형태로 인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공공성과 대중성, 접근성 요인이 높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평가에는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서울시 시가지경관의 가로형 대표경관 대부분은 상업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업기능이 가지는 개방적 접근성과 활동성 등 준공공적 성격과 관련이 있어 보이나 앞으로 문화거리 조성

등 가로경관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대표경관의 인지요인 순위, 인지요인별 대표경관의 순위를 최종적으로 종합해 볼 때(표 9 참조) 대표경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계획과 관리의 시사점들을 도출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남산, 한강 등의 자연형 대표경관들과 경복궁, 남대문 등 역사형 대표경관들은 주변 시가지의 경관친화적 개발유도를 통하여 가시성과 심미성, 보행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중의 문화적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활동프로그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건축물형 대표경관들은 공공과 준공공 건축물들을 위주로 디자인의 심미성을 제고시키고 공공활동 프로그램의 증대를 통해 일반시민대중의 호감도와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광장, 가로 등 시가지형 대표경관들은 공공디자인을 증진시키고 공공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키며 시가지 내의 시대별 역사유산들을 보존, 활용하여 공공환경의 역사문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종합평가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에 있어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경관별로 인지요인들의 평가를 누적시켜 비교할 때,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서울특별시,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에서 나타난 대표경관의 순위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표경관의 종합순위 간에 큰 차이가

표 9. 대표 경관별 인지요인 종합평가

기존 순위	구분	가시성	규모성	차별성	심미성	접근성	활동성	대중성	역사성	문화성	누계	평균	종합 순위
1	남산	3.99	3.76	2.94	3.58	3.04	2.13	3.79	2.81	2.78	28.82	3.20	15
2	한강	4.34	4.28	3.00	3.69	3.52	3.23	4.28	2.68	2.97	31.99	3.55	6
3	63빌딩	4.06	4.02	3.44	2.94	3.33	1.79	2.90	2.14	2.52	27.14	3.02	18
4	경복궁	3.05	3.69	4.05	4.12	3.94	2.84	3.64	4.63	4.38	34.34	3.82	1
5	남대문	3.81	3.38	3.87	3.78	3.74	2.45	3.04	4.34	3.86	32.27	3.59	4
6	광화문	3.67	3.36	3.41	3.69	3.79	2.82	3.46	4.08	3.80	32.08	3.56	5
7	동대문	3.46	3.3	3.34	3.36	3.49	2.63	3.14	3.92	3.74	30.38	3.38	12
8	시청(시청앞광장)	3.89	3.27	3.17	3.50	3.98	2.87	4.31	2.82	3.61	31.42	3.49	8
9	명동거리	3.28	2.77	2.75	3.02	4.24	3.66	4.54	2.39	3.34	29.99	3.33	14
10	덕수궁	2.95	3.07	3.55	3.66	3.39	2.41	3.34	4.13	3.74	30.24	3.36	13
11	서울역 일대	3.81	3.35	3.29	3.08	4.32	2.45	4.14	3.20	2.97	30.61	3.40	10
12	인사동거리	3.00	2.89	3.80	3.95	3.91	3.64	4.41	3.64	4.09	33.33	3.70	3
13	청와대	2.38	3.05	3.20	2.89	1.92	1.52	1.82	2.99	2.68	22.45	2.49	20
14	상암월드컵경기장	3.49	4.07	3.76	3.55	3.70	2.59	3.90	2.43	3.24	30.73	3.41	9
15	여의도	3.59	3.25	2.64	2.9	3.90	2.76	3.99	2.38	2.83	28.24	3.14	16
16	청계천	3.71	3.72	3.81	3.83	4.25	3.58	4.34	3.04	3.75	34.03	3.78	2
17	코엑스	3.54	3.59	3.50	3.47	4.20	3.62	4.29	1.94	3.36	31.51	3.50	7
18	국회의사당	3.74	3.36	3.40	2.59	2.62	1.74	2.29	2.76	2.52	25.02	2.78	19
19	압구정거리 일대	3.18	2.83	2.81	2.94	3.71	2.63	4.24	1.90	3.46	27.70	3.08	17
20	북한산	3.57	3.81	3.41	3.76	3.23	2.29	3.97	3.44	3.00	30.48	3.39	11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면적 평가의 누적값에 의한 종합순위로 볼 때, 기존의 경관자원조사방식에서 상위로 나타난 남산과 한강 같은 자연경관형의 경관들이 본 연구에서는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신 경복궁과 청계천, 인사동거리의 역사경관형과 시가지경관형이 상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단지 개별 대표경관 각각의 인지요인별 점수의 단순 누적치의 순위이고, 이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대표경관들에 대한 총체적 인지강도 순위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의 우세유형이었던 자연경관형보다 역사경관형과 시가지경관형이 보다 높은 종합적 인지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결과(표 9 참조)는 그간의 도시 대표경관의 연구에 있어서 주로 가시적인 이미지 위주의 평가가 가질 수 있었던 문제점을 노정시킨다고 보인다. 특히 활동적 요인이 전 대표경관에서 공히 낮게 평가받은 현상은 도시경관관리에 있어서 이용관리가 시민들의 증대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분석결과는 실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도시경관의 이미지는 활동적 요인과 의미적 요인들이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가시적 요인들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과 이들 비공간적 요인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면에서 향후 대표경관 조사, 평가방법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경관자원들의 계획방식에 있어서도 접근성과 활동성, 문화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참여적 체형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경관관리계획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대표경관들을 대상으로 인지요인들의 상대적 강도를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형별 도시 대표경관의 다양한 인지요인들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 대표경관의 인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나, 대표경관의 유형에 따라 각각 지배적인 인지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개별 인지요인들에 있어서도 각각 두드러진 경관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이라는 사례지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공간적 규모와 경관적 다양성으로 보아 그 연구결과는 한국의 여러 도시들 전반에도 적용가능하리라고 보인다. 대표경관별 요인분석과 요인별 대표경관분석의 상호교차분석은 기성시가지 대표경관의 관리

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시 대표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기할 것은 본 연구에서 다면적 요인분석의 종합에 의한 대표경관 인지강도의 새로운 순위는 종전의 직접적인 경관자원조사방식의 결과와 다르게 역사경관형과 시가지경관형의 상위 부상과 자연경관형의 상대적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제시된 종합순위에는 요인별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순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할 수만은 없겠으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간접적으로 최근 일반시민들의 경관적 관심에 있어서 대표경관의 외관만이 아니라 그에 담겨진 내용적 측면인 역사와 생활문화적 측면에도 점점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기존 대표경관 연구의 접근방법 및 현실적용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기초적 연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설문조사 규모의 확대, 집단별 인지요인의 차이의 검증, 인지요인별 중요도·만족도 연구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보편성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주 1. 서울에서는 1995년부터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서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가는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이미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기록연구로 수행되었다(1995, 1999, 2006). 본 연구는 2006년 발간된 보고서(서울이미지: 변화와 회복) 내의 2004년도 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 주 2. 2007년 행자부, 문화관광부, 농업수산업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에 의해 고시된 경관계획 수립의 법정기준
- 주 3. 서울을 동서남북 네 권역으로 구분하여 강북의 혜화역, 강남의 강남역, 강서의 신도림, 강동의 천호역 그리고 중앙권역인 종각을 중심으로 각 40부씩 설문을 배포하고 시간대는 직장인들의 퇴근시간대와 인구가 집중되는 주말을 이용하였다.
- 주 4. 대표경관 선정에 있어 남대문은 건축물 자체인 남대문과 함께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역사경관을 말한다.
- 주 5. 동대문 또한 홍인지문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포함하는 역사경관을 말한다.
- 주 6. 대표경관 선정에 있어 여의도는 여의도광장 및 여의나루, 선유도 등을 포함한다.
- 주 7. 코엑스의 기존연구결과는 무역센터 코엑스 건물 자체이나 본 연구에서는 건물과 선린광장, 코엑스몰을 모두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했다.
- 주 8. 서울시의 동서남북 4개 권역과 중앙권역에서 총 설문 200부를 조사한 결과, 설문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남녀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도심부라는 장소 특성, 그리고 퇴근시간 전후라는 시간특성상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민들의 분포에 주로 20~30대가 많아 고른 연령층으로 배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직업별로는 주로 전문직/회사원과 학생이 많았으며,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은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인용문헌

1. 국토해양부(2007) 경관법. 경관법시행령. 경관계획수립지침.

2. 김종호, 변재상, 임승빈(2002) 랜드마크의 영향력 범위와 인지요인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0(4): 9-18.
3. 김한배(1998)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서울: 태림문화사.
4. 류기익, 장명수(1987) 전주시 랜드마크의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2): 259-262.
5. 박석중(1988)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시각적 인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영춘(2002) 도시이미지 측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4): 29-40.
7. 변재상(2005) 도시경관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형성모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 공개토론회-서울시 이미지에 관한 다차원 분석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 서울특별시(2006) 서울이미지; 변화와 회복. 서울특별시.
10. 손은영, 김중하(2002) 도시경관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2(2): 659-662
11. 윤인규(1993)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진영, 김용기(1984) 서울 도심지의 랜드마크에 대한 인지와 상관변수에 관한 분석적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19(2): 20-31.
13. 이규목(1980)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건축) 24(94): 54-56.
14. 이규목(1993) 경주시 도시경관과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4): 39-53.
15.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6. 임승빈, 최형석, 변재상(2004) 도시이미지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2(1): 47-56.
17. 주신하, 임승빈(2003) 도시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형용사 목록작성. 한국조경학회지 31(1): 1-10.
18. 최준, 김영환(2008) 인지지도를 이용한 도시이미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2008-11): 513-524.
19. 한국조경학회(2004) 도시경관 계획 및 관리. 문운당.
20. Appleyard, D.(1969) Why buildings are known. Environment and Behavior 1(2): 131-156.
21. Harrison, J. D., and W. A. Howard(1972) The role of meaning in the urban image. Environment and Behavior 4(4): 389-412.
22. Kaplan, S.(1976) "Adaptation, structure and knowledge", In G. T. Moore & R. G. Golledge eds., Environmental Knowing, PA: Dowden, Hutchinson and Ross.
23.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MA: Cambridge, The MIT Press.
24. Nasar, J. L.(1998) The Evaluative Image of the City. CA: Sage Publications Inc.
25. Xuan, W.(2000) The research of urban landmark building design. Proceedings of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774-778.

원 고 접 수 일: 2009년 7월 16일
 심 사 일: 2009년 8월 21일(1차)
 2009년 12월 15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09년 12월 21일
 3인익명 심사필